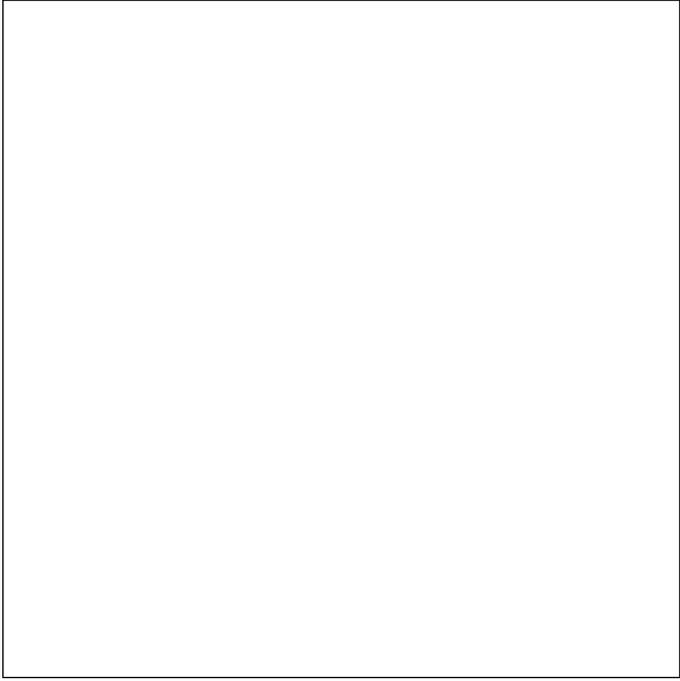


글로벌스토리북스



✎ Lesley Koyi, Ursula Natula
✉ Brian Wambi
📁 Jong Yong Park
🗨️ 3
🗣️ 한국어 ko
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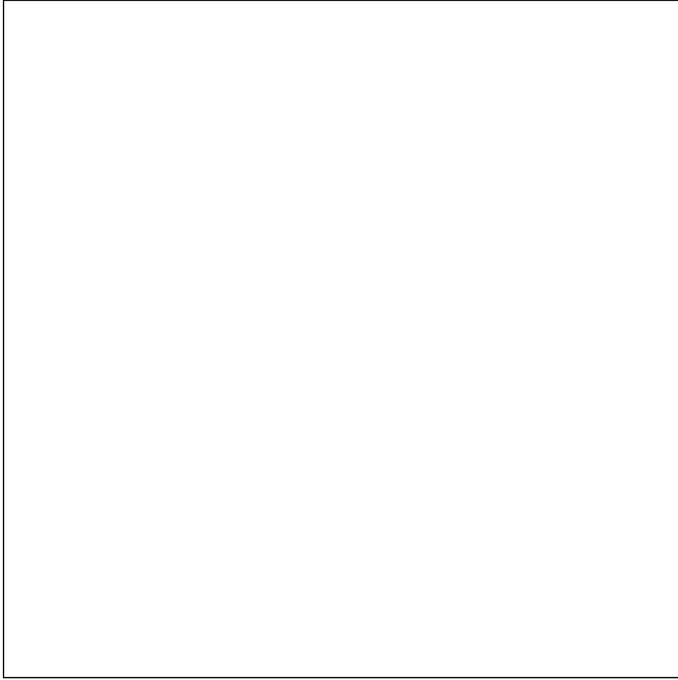
글로벌스토리북스

✎ Lesley Koyi, Ursula Natula
✉ Brian Wambi
📁 Jong Yong Park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[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)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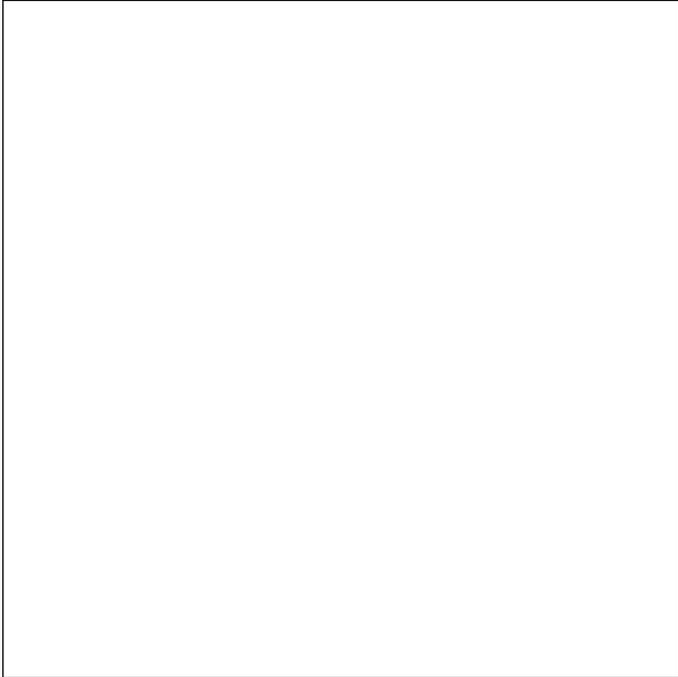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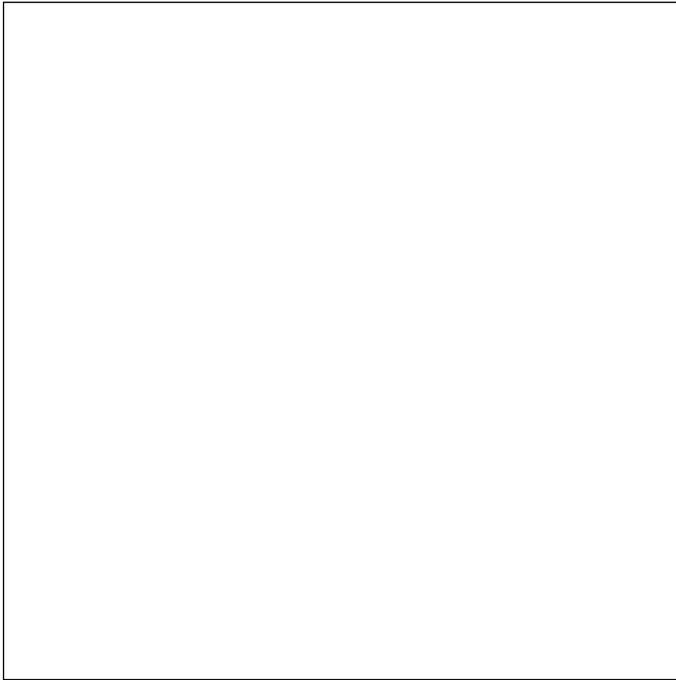


우리 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과 가득 찬 버스들로 붐볐어요. 바닥에는 실을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. 암표상들은 버스 행선지들을 외치고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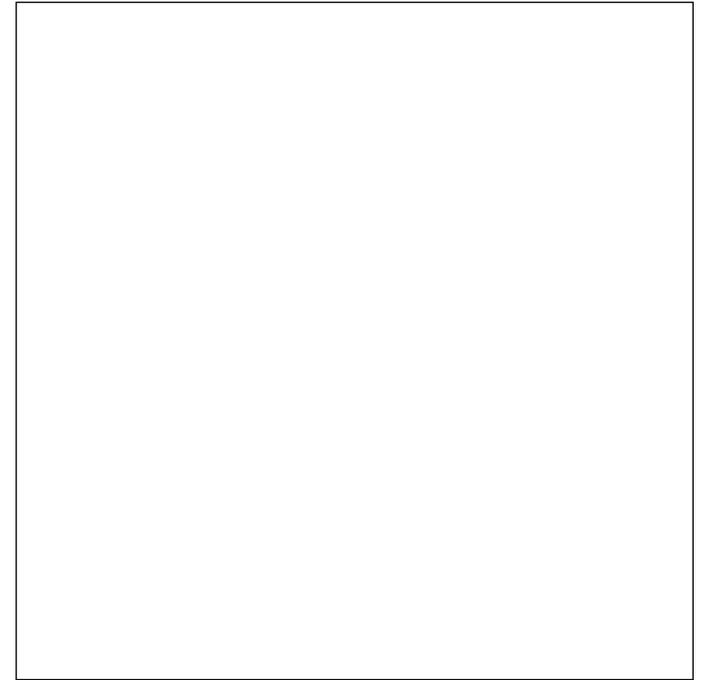
버우였어요.

“시내 시내 서쪽으로 갑니다” 난 한양표
사이 외치는 걸 들었어요. 내가 타야 하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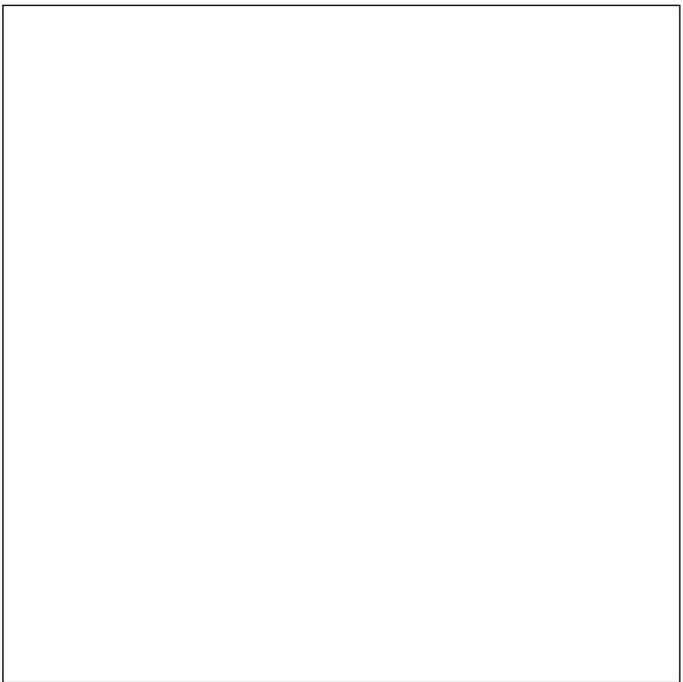


시내버스는 거의 찾지만, 더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짐을 버스 아래에 싸두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버스 안 선반에 두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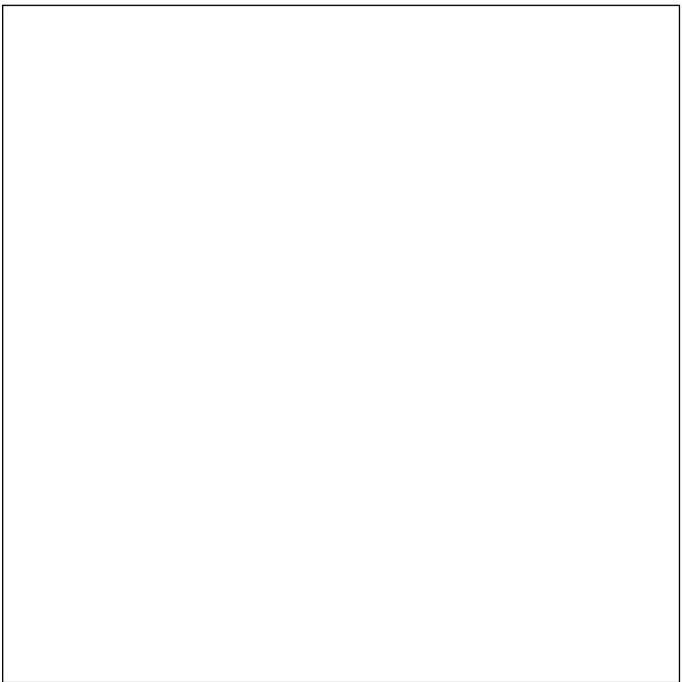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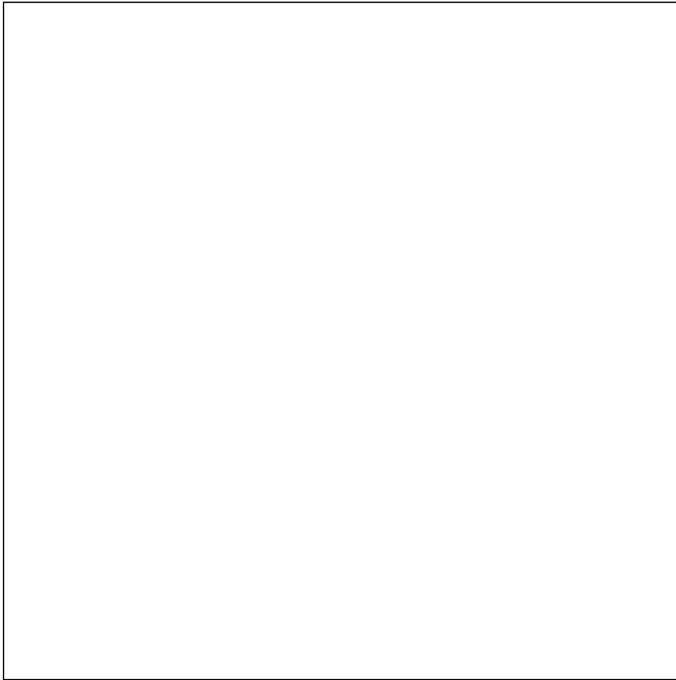
돌아가는 버스는 빠르게 차고 있었어요. 금새 동쪽으로 돌아가겠죠.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건, 삼촌의 집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.

새 탑승객들은 티켓을 꼭 쥐고 물비는 버스 안에 앉을 곳을 찾았어요.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긴 여행을 위해 편하게 만들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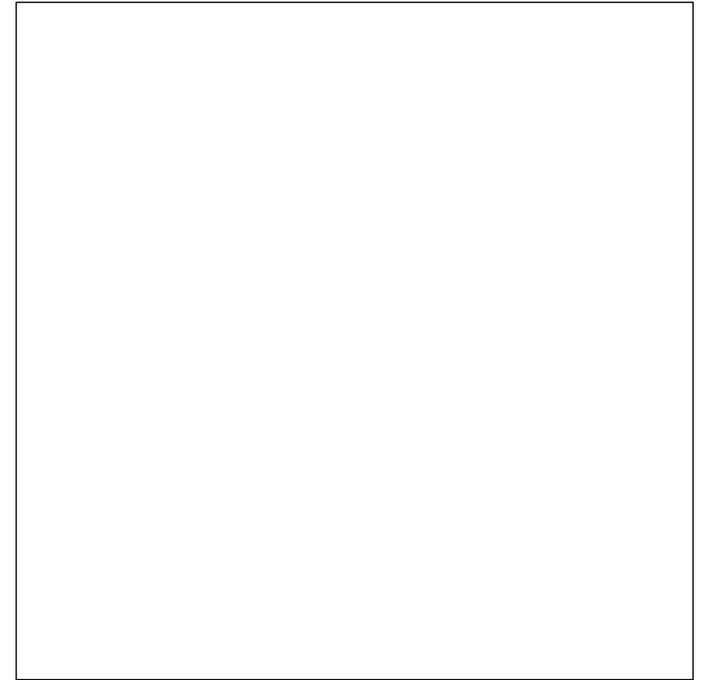


아들 시간 뒤에 난 커다란 두들기는 소리와 내 머리를 토크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요. 난 내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 서 뛰어내렸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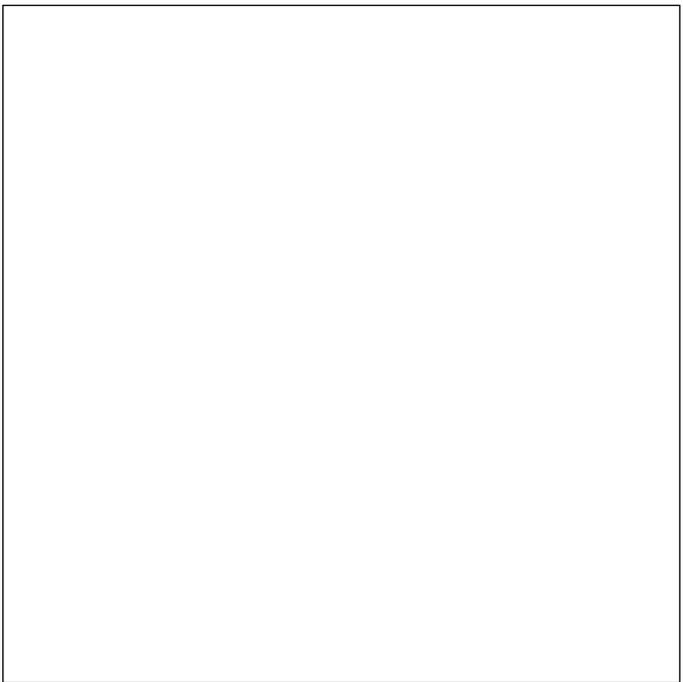


난 창가 옆에 끼어앉았어요. 내 옆의 사람은 초록색 플라스틱 가방을 짊어지고 있었어요. 그는 오렌 샌들과 헤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, 그리고 불안해 보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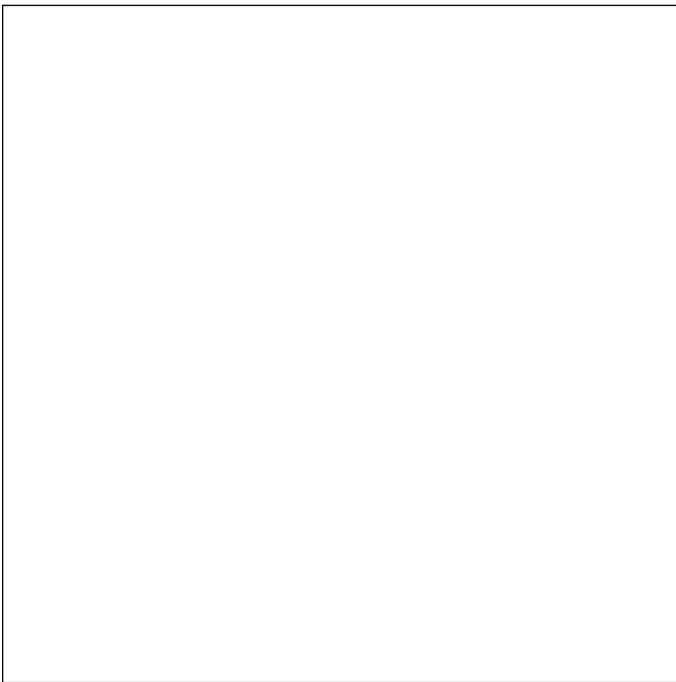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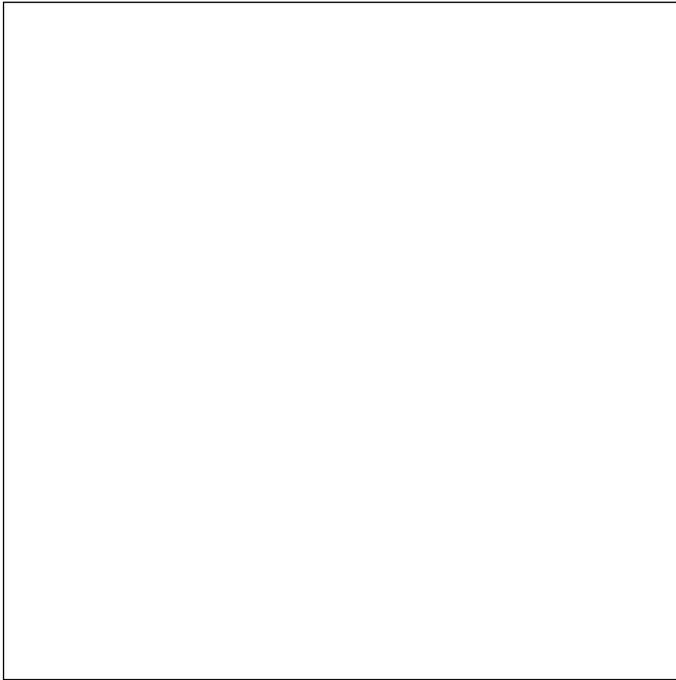
가는 길에 난 삼촌이 큰 도시에서 사는 곳의 이름을 외웠어요. 잠에 들때도 중얼거리고 있었죠.

단 버스밖을 보고 내가 자라난 우리 마을
를 떠나고 있다. 개를 낚아챈다. 단 큰 도시
를 가는 중이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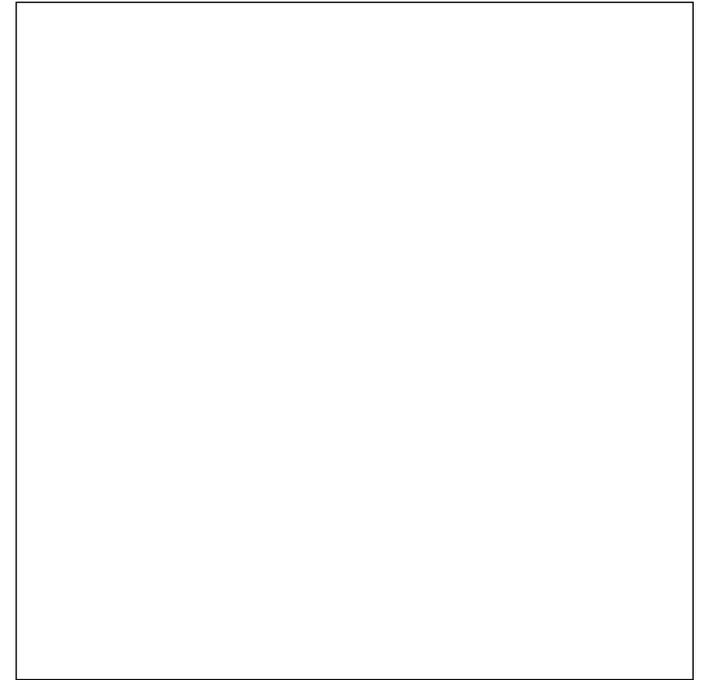


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. 어머니
는 안전하니까? 내 토끼들이 돌을 가져갈
까? 내 동생이 나무 밑에 숨어서 놀고 있
는 걸까?
어떻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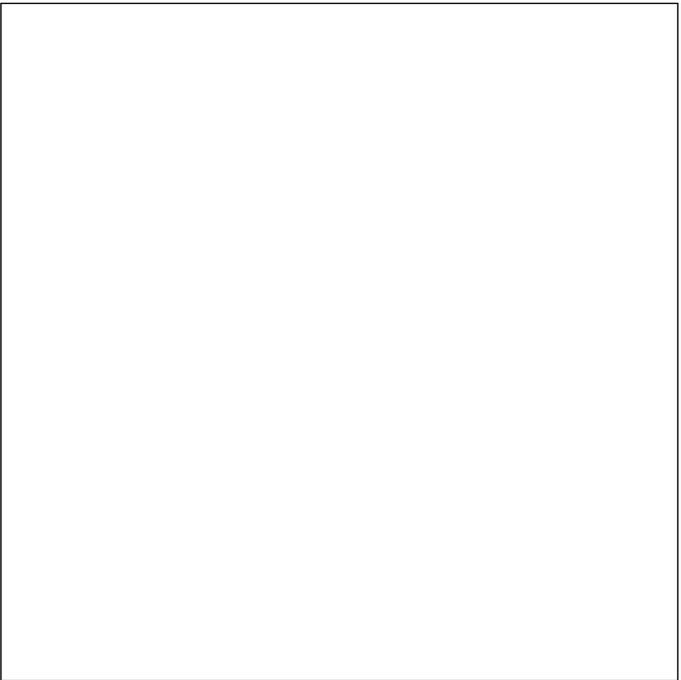


짐 싣는게 끝나고 모든 승객들이 앉았어요.
행상인들은 물건들을 승객들에게 팔기 위
해 버스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어요. 각자
무엇을 팔고 있는지 외쳤어요. 단어들이 웃
기게 들렸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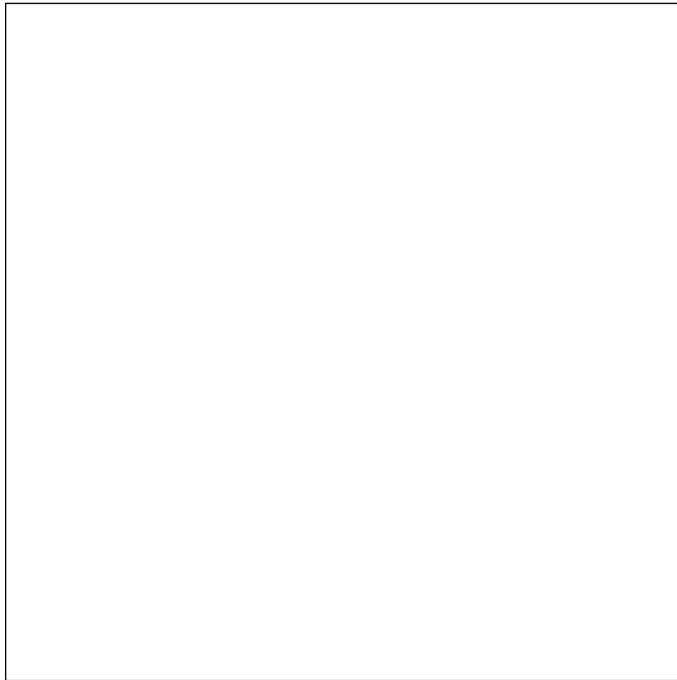


여행이 진행되면서 버스는 매우 더워졌어
요. 난 내 눈을 감고 잠들기를 바랬죠.

몇몇 승객들은 마실 것을 샀고, 다른 사람들
은 작은 간식을 사서 씹기 시작했어요.
나 칸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만 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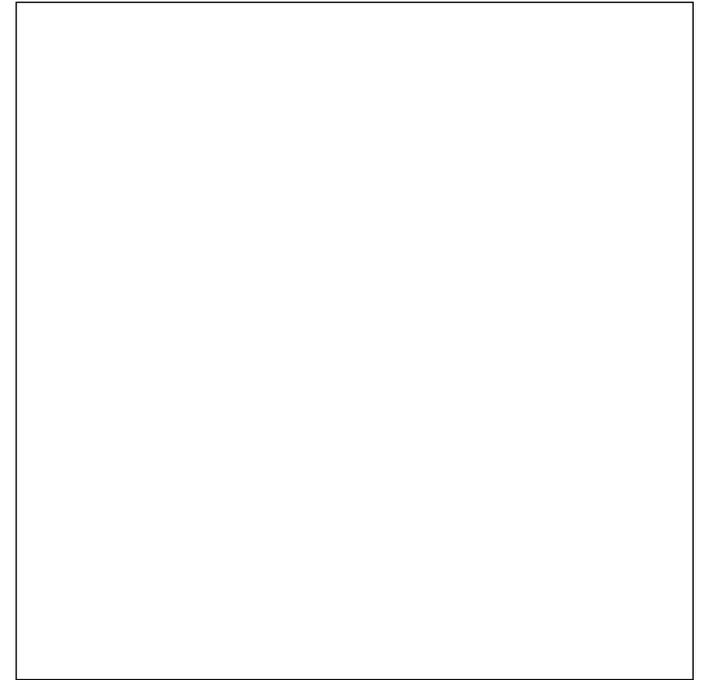


버스가 정류장을 떠날때, 난 차 밖을 내다
보았어요. 난 내가 과연 언제가는 마를
다시 돌아올까 궁금했어요.





이런 행위들은 버스 경적소리에 중단되었어요. 우리가 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. 압표상은 행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.



행상인들은 버스에서 나가기 위해 서로를 밀쳤어요. 몇은 여행객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었어요. 다른이들은 마지막으로 더 팔려는 노력을 했죠.